

실속 재테크

금리상승기 자산 어떻게

마이너스통장·카드론부터 값아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추가금리 상승이 예고된 상황에서 예·적금, 주식 등 재테크가 쉽지 않은 탓이다. 통상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은 짧게 가고, 대출은 고정금리로 바뀌는 것'이 재테크 상식이다. 그러나 초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된 끝에 금리 인상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금리 추가 가능성 여부를 잘 따져보고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이자 부담 큰 대출 원금부터 줄여야 =전문가들은 대출 원금을 줄이고 신규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덜한 12개월, 24개월짜리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우선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

장기 상품 가입 금물... 특판예금 관심을

하반기 증시 변동성... 분할 투자 바람직

의 상황을 먼저 한 뒤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다소 금리가 낮은 순서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굳이 대출해야 한다면 금리상승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보다 12개월, 24개월 물을 택하는 것이 좋다. 3, 6개월 대출의 경우 금리인상압박으로 3, 6개월마다 이자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의 경우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환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변동금리지만 과거 양도성에 금증서(CD)금리보다는 변동성이 줄어든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

용지수)금리 연동상품이 추천된다.

또 대출할 때 시중은행의 우대금리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재테크 지름길이다. 광주은행의 경우 신용카드를 대출할 때 만들더라도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부분 해당은행에 예·적금에 가입해두면 우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기예금 상품 가입 금물= 금리인상이 예고된 시점에 장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12개월이나 24개월 짜리 예금에 가입하면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이자 수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3개월 6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금리인상 시기에 특판예금 등에 가입하면 고금리 혜택을 볼 수 있

다. 투자할 때는 원금을 보장해주는 ELD(주가지수연동예금)나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ELF(주가연계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저식보다 분할매입이 가능한 적립식 투자를 권한다. 채권투자에서 있어서는 금리인상과 채권수익률의 하락은 실과 바늘의 관계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 하반기에도 국내의 증시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기회를 엿보되 분할투자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광주은행 PB센터 정순자 부부장은 "금리가 인상추세일 때는 무엇보다 대출금을 갚아 이자부담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스포티브 룩' 어때요? 1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5층 스포츠 매장서 직원들이 올 여름 인기아이템인 '스포티브 룩'(운동복 느낌의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갤럭시S 최단기간 30만대 판매

<삼성 새 스마트폰>

이달 중 50만대 돌파 가능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폰 갤럭시S가 국내 단일 기종 판매량 사상 최단 기간에 30만대를 돌파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4일 출시한 갤럭시S가 19일만인 지난 12일 개통 30만대를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단일 기종 판매 사상 최단 기록으로, 갤럭시S는 출시 10일 만에 역대 최단 기간으로 판매량 20만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SK텔레콤 측은 "지난주 공급 물량 부족으로 판매 추이가 다소 꺾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요를 적절히 배분한 바람에 하루 평균 1만6000대를 판매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측은 최근 갤럭시S 공급이 정상화돼 지난주 대비 20% 이상 공급이 확대된 만큼, 공급이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삼성전자가 SK텔레콤에 공급한 물량은 35만대에 달한다. 이와 함께 법인 예약물량도 갤럭시S의 판매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량 30만대 가운데 법인 개통은 1만5000대에 불과한데다, 이달 중순부터 9만대의 예약물량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갤럭시S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하루 1만5000대에서 2만대 수준으로 판매가 유지될 것"이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안에 50만대 개통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光銀 더블찬스 50호 출시

광주은행은 오는 27일까지 'KOSPI 200' 지수에 연계한 '더블찬스 정기예금 50호'를 한시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1년제 정기예금으로 코스피200 지수의 상승(하락)률에 따라 최저 0%(원금보장)에서 최고 연 15.0%를 제공한다.

기준지수 결정일 다음 날부터 만기 지수 결정일까지 기준지수가 장중 1회라도 30% 초과 상승하는 경우에는 연 3.0%, 20% 초과 하락시에는 0.0%로 수익이 확정되는 '녹아웃(Knock-Out)'형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상품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어윤대 KB금융 회장 취임

"M&A·인력감축 자제"

어윤대 KB금융 그룹 회장이 13일 취임했다.

KB금융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어 회장의 이사 선임안을 결의했다. KB금융은 주중 이후 이사회를 열어 어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추대했다.

어 회장은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KB금융의 체질이 굉장히 약화돼 있어 앞으로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건강해질 때까지 우리금융 등 은행 인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 회장은 또 "당분간 사람을 강제로 줄이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금리 0.25~0.50%P 추가 인상"

전문가들, 연말금리 2.5~2.7% 전망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상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폭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발표 당시 감중수 한은 총재가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연내 추가 인상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금리 인상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금통위가 연내 0.25~0.50%포인트를 추가 인상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올 연말 금리 수준은 2.5~2.7% 수준이 된다.

이들은 인플레이 압력이 높고, 기초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 진입하기는 했지만 유럽 재정 위기 확대,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금리 인상 폭이나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9~10월 중 금리를 한차례 더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

말에 2.7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상 국면에 진입했고, 경제성장률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우리투자증권도 0.50%포인트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금리 인상이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때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국계 증권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한국투자전략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 모멘텀이 고점을 지났다는 신호가 나타나는데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 문제가 남아 있어 금리 정상화 과정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하반기 0.5% 인상을 점쳤다.

보수적인 전망도 있다. 대우증권은 현 금리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아직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며 연내 한차례 정도의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대우증권도 가계 대출의 추이가 앞으로의 금리 인상 시기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도 금리 인상 폭이 올해보다 가파를 것이라는 견해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연합뉴스

국제선 항공료 또 인상

대한항공 내달부터 15%

대한항공이 내달부터 국제선 일부 노선의 여객운임을 또 올리기로 해 이들 노선의 운임이 1년여 사이에 15%가량 오르게 됐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미주와 유럽, 대양주 일부 노선의 여객운임을 내달 1일부터 5~10% 올린다고 신고했다. 또 미국·캐나다 등 미주 노선에선 5%, 터키·스페인·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 등 유럽 노선과 호주·뉴질랜드 등 대양주 노선에선 10%씩 인상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작년 6월에도 이들 노선의 여객운임을 5~10% 올렸다.

작년에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항공수요가 위축됐지만 미주 노선의 운임을 10%, 유럽과 대양주 노선 운임을 각각 5% 인상했던 것. 그러나 신고재로 돼 있는 이들 노선과 달리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럽 일부 노선과 일본, 중국, 동남아의 대부분 노선에선 2006년 이후 운임이 동결됐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만족도 1위는 '아이폰'

소비자원 450명 대상 조사

스마트폰 이용자 가운데 애플 아이폰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 소비자 450명(노키아 익스프레스뮤직 100명, 모토로라 모토로이 100명, 삼성전자 울니아 2 125명, 애플 아이폰 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이폰의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아이폰은 사용 가능, 인터넷 이용, 휴대성, 애플리케이션 등 4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가격은 노키아 익스프레스뮤직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5개 부문 가운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가격(49.1점)으로, 사용 가능(59.4점), 인터넷 이용(60.9점), 휴대성(58.1점), 애플리케이션(60.5점) 등에 대한 만족도보다 훨씬 낮았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Cheolmanpyo' (철만표) water filter. It features a woman in a white dress and text highlighting 'SINCE 1988', '대한민국대금방수제', and '철만표 방수제'. The ad claims to remove 100% of chlorine and improve water taste.

Advertisement for 'Chojunseongmo' (초전성모) hair salon. It features a man's face and text including '남성 탈모 / 여성탈모', '탈모 초전성모의원', and '최초가짜주주독료리속 무가압니다'. The ad promotes hair restoration treatments.